

'92 양돈인 대회 11월중 지역별 분리 개최

— '92 제5차 이사회 및 제3차 임시총회서 결정



본회는 지난 10월 13일 본회 임원실과 대회의실에서 '92년 제5차 이사회 및 제3차 임시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92 양돈인대회를 11월중 각 도별로 개최기로 결정했다.

'92양돈인대회 개최등과 관련해 소집된 이날 이사회에는 1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용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노영한 전무로부터 최근 양돈산업동향과 자조금 사업추진 등 협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92 4/4분기 신규회비, 자조금 감면(안) ▲규정 일부 개정(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검정소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등의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는 특히 '92양돈인대회는 순수한 양돈인들의

축제로서 각 지역별로 도협의회 주관하에 「자조정신 함양과 생산조절 결의대회」로 개최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경남 울산시지부(지부장: 정대용), 경남 함양지부(지부장: 하영국),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김일중)등 3개 지부에 대해 정관 제3조 및 제25조에 근거, 신규지부 설립을 승인하고, '92년 10월 1일 이후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가입 회원에 한해서는 회비와 자조금을 50% 감면키로 했으며, 축산경영진단 사업에 따른 4백30만원의 일반회계 추경예산과 제2검정소 증축에 따른 2천76만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최근 돈가하락에 주목, 돈육통조림·소시지 등의 수입현황등을 검토하고, 도별 돈육소비홍보 및 시식회, 직매장 활성화, 수입쇠고기 방출물량감축건의, 생산조절홍보등으로 돈가하락에 대처키로 했다.

이사회는 특히 '94년도부터 수입개방되는 냉장돈육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으며, 이밖에 본회에 돈육수출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 돈육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어 개최된 '92 제3차 임시총회에는 55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92양돈인대회 개최(안)을 확정지었는데, 이자리에서 전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돼지값이 1천9백원대로 하락하고, 섬유·신발등 각

중 제조업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처럼 안일한 자세로 경영에 임한다면 UR타결 이후에 살아남을 축종은 전무하다』고 지적, 양돈경영개선을 강조하는 한편,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등 시급한 현안들을 이번 대선공약에 꼭 반영시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회장은 이어 나주시부 노동환지부장에 대해 신임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했다.

임시총회는 노영한전무로부터 「최근 양돈산업동향과 협회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92양돈인대회 개최(안) ▲'92 4/4분기 신규 회원회비, 자조금 감면(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검정소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대의원들은 '92양돈인대회는 양돈인들의 화합과 단합된 힘을 대외에 과시하는 양돈인의 축제이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본래의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에는 지역별로 각도협의회의 주관하에 대회명칭을 「자조정신함양과 생산조절 결의대회」로 하여 개최키로 했다.

'92양돈인대회는 ▲공동체 의식과 자조정신 고취 ▲ 개방화에 대응한 양돈산업 방향제시 ▲지역사회에서 양돈인 위상확립 ▲양돈불황 타개를 위한 모든 10% 감축 결의 ▲돈육소비활성화 모색을 목적으로 기념특강을 통해 자조금사업참여를 촉구하고, 양돈산업의 전망과 개선점을 제기하며, 돈육요리강습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유공자 표창을 통해 사기양양을 도모할 계획이다.

본회, 정부에 돈가하락방지대책 건의

- 정육점 행정지도, 수입쇠고기 방출 축소 등

본회는 최근들어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큰 폭으

로 하락하여 전업규모 이하의 영세한 양돈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94년 냉장육 수입개방을 앞두고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돈가하락방지대책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10월 22일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본회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난 10월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연중 돼지고기 최대 비수기인 11월을 맞아 각도별로 생산조절을 위한 생산자대회 및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최근 돈가하락은 일반수요감퇴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는 돈육 수요감퇴의 최대 요인이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연동제 폐지후 산지가격 및 경락가격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육점 소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 방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요대체가 성립하고 있다」면서 ▲정육점 판매가격을 과거 지육경락가격에 연동제 실시때와 같은 수준에 판매되도록 행정지도해 줄 것 ▲돼지가격이 생산비수준으로 회복될 때 까지 수입쇠고기 방출을 대폭 축소해 줄 것 ▲서울 2개 공판장의 도체등급제 확대 실시에 따라 출하물량을 과도하게 억제하며 산지체화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 ▲우리나라 돈가는 서울 3개 도매시장의 지육경락 평균가를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지육경락가를 발표할 때 노폐돈을 제외한 규격돈 평균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줄 것 ▲현재 일부지역은 90kg 기준으로 생돈 농장출하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8만원대 까지 하락하여 상인들의 횡포가 극심하므로 수매비축을 통해 돼지값이 안정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본회는 또한 경제기획원에도 건의서를 내 돈가하락의 이유와 양돈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육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는 한편 돈가가 생산비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입쇠고기 방출을 조절함과 아

올러 방출가격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축산기업조합에 돈가인하 촉구

본회는 지난 10월 22일 축산기업조합에 대해 최근 돈가폭락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소매가 인하를 통해 이의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이 협조문에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서울 3개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지육 kg당 1천 94원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양돈업은 아직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많은 양돈농가가 도산되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 이러한 양돈업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정육점의 소매가격을 최대한 인하여 소비가 큰 폭으로 확장되어 불황이 조속히 타개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회, 돼지가격 안정대책 각도협의회에 시달

본회는 최근 돼지가격이 하락을 거듭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각도협의회에 긴급 전문을 보내 돼지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돼지가격은 10월들어 하락세가 계속되어 현재 90kg 기준 11만원대라는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기까지 겹쳐 장기적 불안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 자율수매비축자금을 지원받은 축협조합과 한냉(주)에 대해 자율수매비축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돼지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시달하고, 본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본회는 이에 대해 각도협의회에 긴급전문을 보내 ▲수매비축사업에 적극 협조 ▲돼지 사육조절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시달했다.

본회, 제2검정소 검정사 증축공사완공

- 양돈농가에 검정돈 연간 480두 추가공급가능

본회는 지난 8월 30일 경남 하동소재 제2검정소의 검정돈사 2동을 비롯한 검정시설을 완공하고 10월 1일부터 검정돈 입식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증축된 검정시설은 120평규모의 검정돈사2동을 비롯, 방목장 109평, 예비사 31평, 승가훈련장 및 방목장 78평, 관리사 100평 등이다.

검정돈사는 크기가 45m×8.8m로 1동당 50돈방씩을 갖추고 있어 총 200두를 더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돈사형태를 조립식 유창돈사로 만들어 동절기 및 혹서기에는 무창돈사로 활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고, 각 돈방은 복식구조로 1동을 2칸으로 분리하여 올인-올아웃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Fog시스템과 환기시설을 갖춘 최신 시설로 설치되었다.

또한 예비돈사도 조립식 유창돈사와 무동력 벤츄레타 2대를 설치하여 동절기 및 혹서기에 무창돈사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돈방은 단식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방목장(109평)과 승가훈련장 및 방목장(78평)을 설치하여 각 종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돈분 건조장(45평)과 톱밥저장창고(60.5평)도 새로 지어 분뇨처리문제를 해결하였다.

본회의 이번 제2검정소 증축으로 현재 월 80두인 검정돈 입식두수를 월 120두씩 입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두수도 320두규모에서 480두로 늘어나게 되어, 연간 480두의 검정돈을 추가로 양돈농가에 확대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인-올아웃이 가능해져 질병예방을 통한 위생적인 종돈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검정사 증축으로 환돈발생시 여유돈방으로 격리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출품농장의 개량의지를 다수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입농가에 보다 우수한

종돈을 다량 보급하므로써 남부지역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의 주요 종돈수입국에서 돼지피질이 발생해 아일랜드 등 극히 몇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종돈수입이 어려워 우수종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2검정소 증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종돈 개량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증축에 소요된 자금은 총 4억2천6백25만원으로 이중 협회 자부담 1억2천8백7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9천7백55만원이었다.

아미노산, 비타민류, 생균제, 효소제 등도 보조사료에 포함해야

— 본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 10월 13일 아미노산제, 비타민류, 생균제, 미량광물질제, 효소제 등을 보조사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이 의견서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사료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약품으로 분류돼 왔으며, 국제상품분류(HS)에서도 사료분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조사료품목으로 지정하여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지난 9월 18일자로 ▲단미사료의 범위에 단세포 단백질사료로써 사료로 이용하는 효모류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면실, 목초가공품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단미사료중 농축단백질(두류), 당밀, 효모류, 도축(가금)부산물, 유지류(우지, 돈지, 혼합유지), 수지박을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대상으로 추가함 ▲보조사료의 범위를 종전의 향미제, 요소제, 규산

염제로만 되어 있던 것을 세분하여 사료의 품질보조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존제, 항응고제, 결착제, 유화제로 세분하여 당해 항목을 추가하고 사료의 효용증대를 위해 첨가하는 향미제, 요소제, 규산염제, 착색제, 추출제, 휘발성 지방산, 유기산제 및 혼합조제로 하여 해당품목을 추가하여 보조사료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양평지부 축산물직판장 개점 및 사무실 이전



양평지부는 지난 9월 25일 본회 노영한 전무 등 관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직판장을 개설했다.

새로 이사한 양평읍내 지부사무실 옆에 위치한 양평지부 직판장은 부위별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600g 한근에 삼겹살 2천5백원, 기타 정육 2천3백원을 받고 있다. 또한 쇠고기의 경우 등심 9천원, 양지 8천원, 기타 정육 8천5백원에 판매중이고, 이외에 닭고기, 달걀, 양념볼고기 등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양평지부 직판장 개설자금은 축협융자금 5천만원이 소요됐으며, 하루 돼지 2두~3두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81-3

▲전화: (0338)71-3905

본회, 무허가축사 구제 환영 성명 발표

본회를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9월 21일 정부의 무허가축사 구제조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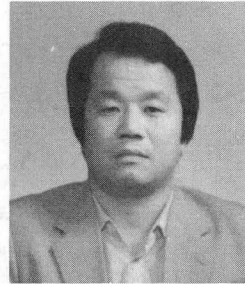
이 성명서에서 본회등은 「이번 정부의 무허가축사 구제조치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양축가들이 마음놓고 양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제 양축가들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 배양과 국가적 목표달성에 앞장서 나갈 것은 물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협의회 개최

충남도협의회(회장 : 이상구)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본회 노영한 전무, 이상구 회장을 비롯, 도내 지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산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92 양돈인대회 도별개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본회 최은범이사 대통령표창 수상



최은범 이사

본회 최은범이사(46세, 당진지부장)는 제14회 전국 축산진흥대회 기간중인 지난 10월 16일 충남서산의 축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최은범이사는 축산진흥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협회 단 신 ■

상주지부 사무실 이전

상주지부(지부장 : 이정호)는 지난 10월 6일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 ▲주소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5(홍성사료옆)
- ▲전화 : (0582)33-1770(중전과 동일)

청양지부 사무실 이전

청양지부(지부장 : 한능일)는 지난 9월 25일 업무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구 284-85
- ▲전화 : (0454)42-3129(중전과 동일)

김천지부 사무실 이전

- ▲주소 : 경북 김천시 용호동 53-2
- ▲전화 : (0547)32-8465

군산·옥구지부 주소변경

- ▲주소 : 전북 군산시 미원동 184(3층)

산청지부 주소변경

-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89-12

- 전화번호 변경
- ▲양주지부 : (0361)62-2953
 - ▲김제지부 : (0658)547-1101
 - ▲서천지부 : (0459)953-8521